

#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대한축구협회가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모처럼 팬들에게 근황과 인사를 전했다. /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캡처

## 팔팔결 수술 손흥민

### 오늘 팀 훈련 복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중단된 가운데 팔팔결 수술을 받은 손흥민(28·토트넘)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그라운드 복귀 준비에 나선다.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는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이달 초 영국에 돌아온 손흥민이 16일 토트넘 훈련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16일 애스턴 빌라와의 EPL 26라운드 중 오른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그는 한국에 돌아와 지난달 21일 수술을 받았다.

이미 주포 해리 케인이 햄스트링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아 장기 결장하며 전력 누수를 겪은 토트넘은 손흥민까지 빠지면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달 20일 라이프치히(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1차전에서 0-1로 진 것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6경기 무승에 그쳤다.

26라운드까지 5위였던 리그 순위는 8위로 떨어졌고, UCL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선 모두 탈락해 이번 시즌 타이틀 도전이 모두 물 건너갔다.

이제 다음 시즌 유럽 대회 진출 경쟁 정도가 남아 있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리그가 중단되면서 토트넘으로선 좋지 않은 분위기를 끌고 손흥민을 비롯한 부상 선수가 회복할 시간을 벌었다.

한편 손흥민은 14일 대한축구협회가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모처럼 팬들에게 근황과 인사를 전했다. 밝은 표정의 손흥민은 “많은 분의 응원과 성원 덕분에 수술을 잘하고 재할 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강인 이번엔 발목 부상

### 목발 짚고 훈련장 떠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스페인 프로축구도 최소 2주간 리그 중단을 결정할 가운데 이강인(19·발렌시아)은 부상 치료로 이 기간을 보내게 됐다.

스페인 스포츠 전문지 아스는 13일(이하 현지 시간) “이강인이 어제 팀 훈련에서 오른 발목을 빼었다”면서 “그는 오늘 아침 목발에 의지한 채 파테르나에 있는 팀 훈련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발렌시아 구단이 이강인의 부상과 관련해 공지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 “하지만 이강인은 리그 중단 기간 발목 치료를 받아야만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올 시즌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왼쪽 허벅지 근육을 다쳐 두달 가까이 전열에서 이탈했고, 지난해에도 훈련 중 허벅지 근육통을 호소해 한 경기를 건너뛰었다. /연합뉴스

# ‘플로리다 캠프 끝’ KIA 오늘 귀국



KIA 타이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서 진행한 45일간의 스프링캠프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서 진행한 45일간의 2020시즌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16일 귀국한다.

KBO리그 역대 세 번째 외국인 사령탑인 맷 윌리엄스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KIA는 지난달 1일 플로리다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 21일부터 미국 독립리그 연합팀, 현지 대학팀 등과 20차례 연습 경기를 벌여 실전 감각을 키웠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시범경기가 취소되자 스프링캠프를 8일 연장한 KIA 선수단은 애초 15~16일 이틀에 나눠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16일 함께 들어온다.

허리통증이 있었던 이창진과 홍통을 호소한 백미카엘의 중도 귀국 외에 선수단 전원이 큰 부상 없이 캠프 일정을 소화했다.

## 18일부터 훈련 재개

### 코로나19 확산 방지

### 타팀과 연습경기 금지

### 자체 홍백전 시즌 준비

선수단은 16일 오후 5시15분 인천 공항에 도착해 광주로 향한다. 17일 휴식을 취한 뒤 18일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선발 라인업 윤곽 윌리엄스 감독이 스프링캠프에서 진행한 20차례의 연습경기에서 올 시즌 주전라인업을 엿볼 수 있다. 20경기 중 호소 선수들이 나선 경기는 12경기. 라인업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지난해 도루왕 박찬호가 톱타자를 맡은 가운데 김선빈과 데이블세터를 이뤘다. 수비 포지션은 박찬호가 유격수, 김선빈이 2루수로 이동했다. 박찬호는 30타수8안타4득점5타점을 기록했다. 김선빈은 25타수14안타7득점3타점을 기록했다. 마지막 3차례의 연습 경기에는 1-2타석만 소화하며 실전 준비를 마쳤다.

중심타선은 최형우-나지완-터커였다. 최형우가 나서지 않았던 10차전은 한준수-나지완-터커, 18차전은 터커-나지완-최원준으로 중심타선이 이뤄졌다. 수비포지션은 최형우가 지명타자로 나선 가운데 나지완이 좌익수, 터커가 우익수를 맡았다.

최형우는 24타수13안타(1홈런)6타점6득점, 나지완은 26타수6안타(1홈런)6타점4득점, 터커는 25타수8안타(2홈런)5타점2득점을 각각 기록했다.

◇양현종·브룩스·가봉 실전 완료 1-3 선발 양현종, 브룩스, 가봉은 실전 점점을 마쳤다. 양현종은 2차례 등판, 5이닝6피안타(1홈런)2실점을 기록했고, 브룩스는 4경기에서 12%이닝9피안타2실점을 기록했다. 특히 브룩스는 마지막 등판에서 9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무실점 호투로 눈길을 끌었다. 가봉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캠프 막판 1경기에서 등판, 2이닝2피안타3탈삼진 무실점으로 구위를 점했다.

4-5선발 후보인 임기영, 이민우, 홍상삼 등도 캠프에서 눈도장을 찍었다. 임기영은 11이닝8피안타11탈삼진3실점을, 이민우는 13이닝8피안타14탈삼진1실점을, 홍상삼은 7이닝11피안타7탈삼진5실점을 기록했다.

◇자체 홍백전으로 시즌 준비 KIA는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한다.

마지막 실전 테스트가 될 시범경기가 취소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 팀과의 연습경기도 제한된 만

전 점점을 마쳤다. 양현종은 2차례 등판, 5이닝6피안타(1홈런)2실점을 기록했고, 브룩스는 4경기에서 12%이닝9피안타2실점을 기록했다. 특히 브룩스는 마지막 등판에서 9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무실점 호투로 눈길을 끌었다. 가봉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캠프 막판 1경기에서 등판, 2이닝2피안타3탈삼진 무실점으로 구위를 점했다.

4-5선발 후보인 임기영, 이민우, 홍상삼 등도 캠프에서 눈도장을 찍었다. 임기영은 11이닝8피안타11탈삼진3실점을, 이민우는 13이닝8피안타14탈삼진1실점을, 홍상삼은 7이닝11피안타7탈삼진5실점을 기록했다.

금 KIA는 자체 홍백전을 통해 시즌을 준비한다.

선수단 전체가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선수단은 출퇴근을 하며 훈련에 임한다. 이에 KIA는 귀국 후 선수단 교육을 통해 코로나 예방 태세를 갖추며 외부인과의 접촉도 차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훈련 시 KBO 취재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계획이다. 야구장 입구에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했고 체온 측정수 37.5도 이상일 경우는 출입을 제한한다.

KIA 관계자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팬, 언론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팬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수단에 대한 접근이 하루 속히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혼합복식 서승재-채유정이 14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 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4강전에서 데차폴 푸아바라누크로-삼시리 타에랏타나차이(태국)와 경기를 하고 있다. 서승재-채유정은 이날 경기에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소희-신승찬·서승재-채유정

### 전영오픈 배드민턴 ‘동메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세계 최고 권위 배드민턴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여자복식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 국제공항)과 혼합복식 서승재-채유정(이상 삼성생명)은 14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4강전에서 나란히 패하며 3위로 일정을 마쳤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은 4강전에서 세계랭킹 6위 두 웨-리인후이(중국)에게 0-2(17-21 17-21)로 경기를 내졌다. 이어서 열린 혼합복식 4강전에서는 세계랭킹 7위 서승재-채유정이 세계랭킹 3위 데차폴 푸아

바라누크로-삼시리 타에랏타나차이(태국)와 접전 끝에 1-2(18-21 21-17 19-21)로 아쉽게 패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대표팀은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지난해 전영오픈 ‘노메달’ 수모를 설소했다.

대표팀은 전영오픈을 이어 스위스 오픈(17~22일), 인도오픈(24~29일), 말레이시아오픈(31일~4월 5일), 싱가포르오픈(4월 7~12일), 아시아배드민턴선수권대회(4월 21~26일)에 연달아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투어를 조기에 종료하게 됐다. /연합뉴스

## MLB 개막전 연기 시범경기 취소

### 코리안 빅리거들 미국 구단서 훈련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이 연기되고 시범경기가 취소됐지만, 코리안 빅리거들은 미국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 남아 훈련을 이어갈 전망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3일(한국시간) “시범경기를 취소하고, 정규시즌 개막을 최소 2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메이저리그 시계도 멈췄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인 메이저리그 구단은 훈련 시설을 개방해 선수들의 훈련을 도울 계획이다.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하고, 선발진 진입을 위해 속도를 높이던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실전 등판이 어려울 터라, 김광현은 볼펜피칭과 시뮬레이션 피칭 등으로 투구 감각을 유지할 전망이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도 플로리다주 데니든에 남아 동료와 훈련한다. 사실상 개막전 선발로 내정된 류현진은 일정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예정보다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오래 머문다. 시범경기가 취소되고 개막도 연기되면서 추신수와 텍사스 동료들의 애리조나 체류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효과

###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통해 6억5천만원 국비 확보

광주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을 통해 6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1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방체

육진흥 지원사업은 시·도별 실업팀 수 및 경기력 향상 등을 감안해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지난해 광주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재정여건과 실업팀 창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체육회는 확보받은 국비를 훈련(경기)용품,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등으로 활용했다. 육상 등 31개 종목과 스포츠과학센터에 총 286개 품목 6,785점의 훈련(경기)용품을 지원했고, 소프트

니스 등 19개 종목에는 61회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를 지원했다. 국비 확보는 우수선수 발굴, 꿈나무 선수 육성, 초·중·고·일반부 연계육성 등에 기여했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들이 빛을 발하며 종합 10위(전년 대비 4단계 도약)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광주시체육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지훈련이 취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대한체육회와의 원활한 업무 지원으로 불운액을 최소화하며 보조금 집행을 완료, 종목단체 공동 지원으로 광주시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광중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수들의 열악한 훈련여건이 개선됐고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